



회방사를 경계로 산지대·아고산대로 구분 자연관찰로 주변 숲 노각나무 2000여 그루 자생 82종 조류상 등산객·관광객 영향으로 10여종만 관찰



일반적으로 식물의 수직분포대는 저산대, 산지대, 아고산대, 고산대로 나뉜다. 아고산대(亞高山帶, subalpine zone)는 해발 1000m에서 2000m 사이의 산으로 수평분포대로 볼 때는 아한대에 속해 있다. 삼국시대 국경이었던 백두대간은 소백산-월악산-속리산-민주지산-덕유산-지리산 등의 아고산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변경의 아고산대 산에 국찰(國柵)과 관문(關門)과 산성(山城)들이 집중해 세워졌다. 해발 1439m인 소백산에는 특히 호국을 목적으로 지어진 신라 고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최고봉인 비로봉 아래는 비로사와 용현사, 국망봉(1420m) 아래는 초암사와 성혈사, 연화봉(1383m) 아래는 회방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 동쪽으로는 부석사가 자리하고 있다.

## 바람산 위에 펼쳐진 꽃들의 잔치

소백에 흩어져 있는 절들은 대개 의상대사 또는 그의 문도들에 의해 삼국통일 직후에 창건되었으나, 유독 회방사만은 통일 전에 두운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부석사 창건(676년)보다 23년이나 앞선 선덕여왕 때 신라가 소백산 지역의 잔존 고구려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창건한 것으로 짐작된다.

소백산은 한자로 '小'으로도 쓰고 '小'으로도 쓴다. '白'자는 단순한 '흰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먹을 쥐고 엄지 손가락을 세운 모양이 '白'자이니, 바로 '첫째'와 ' 으뜸'을 상징한다. 이름에 '小'자가 있지만, 생태적으로도 소백산은 결코 작거나 낮은 산이 아니다.

회방사의 고도는 해발 1000m에 육박한다. 회방사 아래 계곡 주변은 해발 1000m 미만인 '산지대'에 속하고, 회방사 위쪽으로는 '아고산대'에 속한다. 같은 산이라도 고도가 다르면 식생에 차이가 나고, 서식하는 곤충들의 종류도 달라진다.

회방사 생태탐방은 회방사를 중심으로 2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주차장이 있는 집단시설촌에서부터 회방사까지를 제1구간으로, 회방사에서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까지를 제2구간으로 설정하여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생태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매표소를 지나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오른쪽으로는 신하리를 굽이굽이 도는 찾길에 회방사까지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는 회방계곡을 끼고 자연관찰로가 회방사까지 나 있다.

회방계곡의 물은 소백산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회방사 앞을 지나 회방폭포를 만든 후 풍기-영주로 내려가 내성천에 합류된다. 내성천은 예전 지보에서 낙동강 분류를 만나 흡수된다.

자연관찰로를 따라 회방사까지는 약 2km, 이 구간은 거의가 낙엽활엽수림이다. 숲에 또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수종이 한두 종으로 된 단순림은 남성의 숲으로 보고, 여러 수종과 풀꽃들이 어울어진 혼효림을 여성의 숲으로 본다.

이 지역 숲의 특징으로는, 노각나무 군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노각나무 자생지의 최북단지역으로, 약 2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각나무는 껍질이 사슴뿔과 비슷하다고 해서 '녹각(鹿角)'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음운이 변하여 '노각'이 되었다.

제1구간은 딱정벌레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혼효림이지만,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몸집이 큰 곤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늘소 종류들도 몸집들이 모두 고만고만하다.

가을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먹세줄흰가시나방이 있다. 날개를 편 길이가 3cm 가량으로, 주로 깊은 산지에서 관찰된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지역

에서만 서식한다. 회방폭포 못 미친 곳에 몇 해 전까지 상가들이 있었으나, 아래 시설촌은 모두 철거되고 현재는 작은 연못과 야생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는 회방사 전용 시멘트 도로가 나 있고, 직진하면 회방폭포를 거쳐 회방사로 가는 계곡로이다. 돌계단과 다리를 지나면 왼쪽으로 회방폭포가 높이 28m의 위용을 드러낸다.

소백산은 지리산과 함께 기반암의 노출이 적은 평탄한 구릉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육산이다. 기암절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계곡 주변에서 겨우 바위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소백산의 지질은 화강암질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크게 나누는데, 회방계곡 일대는 대부분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특히 회방폭포 주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물보라로 습도가 높은 회방폭포 주변은 음이온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다. 음이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로, 전기를 띠고 있다. 폭포가 있는 계곡이나 파도가 있는 해변에서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음이온 때문이다.

작은 물까마귀 한 마리가 철다리 아래로 손잡같이 몸을 숨긴다. 소백산의 조류상은 82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여름과 가을 두 차례의 조사에서 관찰된 조류는 노랑할미새, 물까마귀, 박새, 쇠박새, 곤졸박이, 동고비, 딱새, 어저 등 모두 합쳐서 10여종에 불과했다. 평일에도 끊이지 않는 등산객들과 관광객의 발걸음 때문에 그리 다양하지 않다.

회방사는 지명도에 비해 사역(지역)이 좁은 편이다. 식생조건으로는 이렇다할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회방사에서 연화봉까지는 1시간거리이지만, 초입에 해발 1050m의 깔딱고개가 있어서 숨이 가쁘다. 소백산에다 케이בל카를 놓자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바로 이 깔딱고개 때문이다. 깔딱고개로 오르다보면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 때 생긴 산사태가 곳곳에 보인다. 임시방편으로 마대를 덮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출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



남색조원하늘소



노각나무 수피

깔딱고개를 지나 연화봉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회방사-깔딱고개-연화봉에 이르는 구간에 투구꽃, 눈괴불주머니, 물방선, 노랑물방선, 가시여귀, 송장풀, 승마, 가는장구채, 까치고들빼기, 까실쑥부쟁이, 정영영경귀, 단풍취, 오리방풀, 꼭두서니, 참취, 진범, 흰진범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가을꽃 하면 국화과가 대부분이다. 국화를 제외하고는 투구꽃이 돋보인다. 중부 이북의 깊은 산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덩굴도 아닌 줄기는 다른 물체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1m나 자란다. 이를 그대로 투구꽃을 닮은 꽃은 보라색이며, 뿌리에 강한 독을 지니

고 있다. 이 구간 안에 기록해둘 만한 것으로는 수령이 20년 안팎되는 신갈나무 군락이 있다. 특히 깔딱고개 주변은 단순림이라도 좋을 만큼 무성한 신갈나무 숲이다. 신갈나무는 다른 참나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에 잘 자라므로 능선 부근에서 많이 나타난다.

연화봉이 가까워지면서 신갈나무와 철쭉이 바뀐 터치를 한다.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에는 자연관찰로가 있다. 연화봉을 지나 비로봉까지는 4km 남짓하다. 이 구간은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지는 야생화 초원지대로, 역시 말잔등처럼 부드러운 능선길이 나 있다. 이처럼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부드러운 구릉으로 이어지는 지형을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라고 한다. 소백산의 고위평탄면은 백두대간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고산대 정상과 능선 주변은 어디나 바람이 세고 안개가 자주 끼며 기온 변화가 심해서 식물의 생장에 부적합하다. 소백산을 일컬어 '바람의 산'이라고 하는 까닭도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강한 북서풍의 영향 말고도 능선에 숲이 없어서 바람을 더욱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곳에 소백산 주먹이 살고 있다.



먹세줄흰가시나방

글 · 사진=김재일(사람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